

조선후기 경상감영의 출판과 간행본의 특징

손 계 영*

- I. 머리말
- II. 경상감영 간행본의 주제별 현황
- III. 경상감영 간행본의 간기 분석
- IV. 경상감영 출판의 특징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후기 책판목록에 수록된 경상감영본 책판 리스트와 현존하는 간행본을 비교 분석하여 경상감영본 출판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책판목록에 수록된 경상감영본 168종을 추출하여 주제별 현황을 분석하였고, 경상감영본 168종을 중심으로 경상감영 간행이 표기된 현존본 刊記를 조사·분석하여 경상감영본 간기의 다양한 형태와 표현방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경상감영 간행본이 갖는 조선후기 출판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판목록에 수록된 경상감영본 168종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經部 18.5%, 史部 27.4%, 子部 19.6%, 集部 3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 sonkey@cu.ac.kr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17..66.005>

서적인 경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문학류인 집부가 전체 1/3 이상을 차지하였다.

둘째,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현존본 간기를 조사한 결과 간기의 형태는 정방형 사각테두리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테두리가 없는 경우에는 본문 마지막 페이지 전체에 간기를 표기하는 경우와 본문 끝 마지막 줄에 간기를 간략하게 표기하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간기표현은 기본적으로 간행시기, 간행주체, 간행행위에 대한 표현 등이 포함되고, 예외적으로 책판 보관 주체와 행위에 대한 표현이 추가되었다.

셋째, 경상감영 출판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경상감영은 중앙에서 전달된 중앙 간행본을 번각하여 출판하는 영남지역 거점 간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집류 간행에 있어서는 경상감사 주도 하에 문집 간행이 이루어졌으며, 문집류·족보류·연보류와 같이 특정 인물 또는 문중과 관련된 간행본의 경우에는 경상감영에서 계속 보관하지 않았고, 인근 사찰로 옮겨져 보관되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경상감영, 경상감영본, 嶺營本, 冊板目錄, 조선후기, 刊記

I. 머리말

감영은 조선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중앙의 국왕과 군현 사이에 위치하였다. 국왕의 명령을 군현의 수령과 지역민에게 전달하고, 군현의 업무를 파악하고 평가하였으며, 군정의 조정과 부세의 수취 등의 업무를 중앙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전기에는 감사가 도내 각 지역을 순행하는 行營의 형태에서 조선후기가 되면 한 곳에 머무는 留營의 형태로 변화하였는데, 경상감영의 경우 조선초기 경주와 상주·안동 등에서의 행영 체제는 조선후기가 되면 대구부를 중심으로 한 유영 체제를 구축하였다. 유영 체제로 변화된 경상감영은 중앙 및 군현과의 소통, 지방재정의 운영, 문서작성과 관리, 지방관의 평가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지만, 또 다른 중요역할 중 하나가 출판이었다.

경상감영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서책이 책판으로 간행되었고, 해당 책판은 감영의 장관각에서 보관·관리되었다. 경상감사는 경상도 고을에서 간행되었던 책판을 조사하여 책판목록을 만들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그것을 중앙에 보고하여 각도의 소장 책판목록을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당시 작성된 책판목록을 통해 각 고을마다 어떤 책판을 간행하고 소장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영 체제로 정착하게 된 조선후기 경상감영에서는 어떤 유형의 서책을 출판하였는지 다루고자 하며, 경상감영 출판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책판목록에 수록된 경상감영 간행본을 분석하고, 각 간행본의 현존본을 조사하여 책판목록 경상감영본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책판목록에 수록된 영영본 168종을 추출하여 經史子集 주제별로 분류함으로써 경상감영본의 성격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책판목록 수록 영영본 168종의 현존본을 찾기 위해 경상감영본임을 알려주는 간기와 표제지를 조사하고, 조사된 영영본 간기의 다양한 형태와 표현방식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책판목록 수록 경

상감영본 168종과 현존본을 비교 분석하여 감영 출판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경상감영 간행본의 주제별 현황

경상감영이 대구에 정착하게 된 이후에 작성된 책판목록을 조사하고, 해당 책판목록에서 대구의 경상감영에서 소장하였던 책판의 서명을 분석하였다. 경상감영은 慶尙道營上, 慶尙監營, 嶺南觀察營, 大丘(大邱), 大丘營上(大邱營上) 등으로 표기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상감영 소장 책판이 표기된 책판목록으로는 ①慶尙道冊板(1730년경), ②嶺南冊板(1730년경), ③冊板置簿冊(1740년경), ④三南所藏冊板(1743년경), ⑤諸道冊板錄(1750년경), ⑥完營冊板目錄(1759년경), ⑦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1760년경), ⑧各道冊板目錄(1778년경), ⑨鏤板考(1796년), ⑩書冊目錄(1889년), ⑪冊板錄(미상) 등 총 11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 각 책판목록별 경상감영 소장 책판의 종수는 <표 1>과 같다.

1) 본고는 『韓國의 冊板目錄』(정형우·윤병태 공편, 보경문화사, 1995)에 수록된 책판목록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표 1. 경상감영 소장 책판이 수록된 책판목록 및 경상감영 소장 책판 종수

| | 책판목록명 (작성시기) | 경상감영의 표기 | 종수 | 비고 |
|----|--------------------|----------|-----|------------------------|
| 1 | 慶尙道冊板(1730년경) | (慶尙)營上 | 35종 | |
| 2 | 嶺南冊板(1730년경) | 慶尙道營上 | 42종 | |
| 3 | 冊板置簿冊(1740년경) | (慶尙)營上 | 11종 | |
| 4 | 三南所藏冊板(1743년경) | 慶尙監營大丘 | 31종 | |
| 5 | 諸道冊板錄(1750년경) | 慶尙監營 | 31종 | |
| 6 | 完營冊板目錄(1759년경) | 慶尙道營上 | 28종 | |
| 7 |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1760년경) | 大丘 | 36종 | 頑不用, 間頑, 사찰 소장본 별도 |
| 8 | 各道冊板目錄(1778년경) | 慶尙監營 | 56종 | 新刊 9종 포함 |
| 9 | 鏤板考(1796년) | 嶺南觀察營 | 49종 | |
| 10 | 書冊目錄(1889년) | (慶尙)營上 | 95종 | 사찰 소장 25종 별도 |
| 11 | 冊板錄(미상) | 大丘營上 | 72종 | 사찰 소장본 별도, 대구본부 23종 포함 |

이상에서 언급한 11종의 책판목록에 수록된 경상감영 소장 책판을 정리하면 책판 종수의 합계는 총 168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책판목록에 수록된 경상감영 책판이 모두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조선후기에 지방관아의 책판이 사찰 또는 서원으로 이동하였던 현상은 있었던 반면, 사찰·서원 등의 책판이 감영 등 지방관아로 이동한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책판목록에 수록된 경상감영 책판을 모두 경상감영 간행본으로 간주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경상감영 간행본 168종의 주제별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經部·史部·子部·集部의 사부분류와 각 部別 세부 항목(類)의 분류도 함께 시도하였다. 經史子集의 각 部別 세부 항목과 해당 종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經史子集 部別 세부 분류 및 해당 중수

| | | | | | | | | | | |
|-----|-----|-----|-----|------|-------|-----|-----|-----|-----|-----|
| 經部 | 禮類 | 四書類 | 小學類 | 易類 | 詩類 | 書類 | 春秋類 | | | 31 |
| | 11 | 8 | 4 | 3 | 2 | 2 | 1 | | | |
| 史部 | 政法類 | 別史類 | 雜史類 | 編年類 | 詔令奏議類 | 傳記類 | 抄史類 | 正史類 | 譜系類 | 46 |
| | 14 | 6 | 6 | 5 | 5 | 3 | 3 | 2 | 2 | |
| 子部 | 儒家類 | 醫家類 | 兵家類 | 藝術類 | 類書類 | 農家類 | 雜家類 | | | 33 |
| | 16 | 7 | 3 | 3 | 2 | 1 | 1 | | | |
| 集部 | 別集類 | 總集類 | 詞曲類 | 詩文評類 | | | | | | 58 |
| | 48 | 7 | 2 | 1 | | | | | | |
| 합 계 | | | | | | | | | | 168 |

經部는 총31종으로 禮類 11종, 四書類 8종, 小學類 4종, 易類 3종, 詩類 2종, 書類 2종, 春秋類 1종으로 나타났다.²⁾ 예류에는 『家禮』, 『三禮儀』, 『喪禮備要』, 『禮記集說大全』, 『禮記淺見錄』, 『六禮疑輯』, 『儀禮集傳』, 『儀禮經傳通解』, 『纂圖互註周禮』, 『鄉禮合編』, 『司馬氏書儀』 등이 간행되었으며, 사서류에는 논어·맹자·대학·중용과 그 언해본이 포함되었다. 소학류에는 『御定奎章全韻』, 『三韻聲彙』, 『詩韻袖珍』, 『千字文』 등이 간행되었고, 역류에는 주역과 그 언해본, 시류와 서류에는 시경·서경 및 그 언해본이 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춘추류에는 『春秋經傳集解』가 간행되었다.

史部는 총 46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유별로 살펴보면, 政法類가

2)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四書類, 易類, 詩類, 書類 등의 七書類 중수에는 한문본과 언해본이 포함된 것이다.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칠서류 한문본 및 언해본 실물을 살펴보면 戊寅·壬午·甲申·丙戌·戊子 新刊本과 乙丑四月·庚辰七月·丁巳正月·戊午五月 등의 重刊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간본의 경우에는 동일 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가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嶺營 간행본 중 七書類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약 20여 년을 주기로 계속 새겨서 간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기존의 판을 누각적으로 보충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았다. (남권희, 「경상감영 간행본과 낙육재 소장서책 분석」,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2004, pp.292-293.)

14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別史類(6종), 雜史類(6종), 編年類(5종), 詔令奏議類(5종), 傳記類(3종), 抄史類(3종), 正史類(2종), 譜系類(2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법류에는 『國朝喪禮補編』, 『大明律講解』, 『大明集禮』, 『大典通編』, 『增修無冤錄大全』, 『增修無冤錄諺解』, 『礪溪隨錄』, 『小華外史』,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 『六典條例』, 『御定欽恤典則』, 『崇禎再庚申增廣司馬榜目』, 『崇禎紀元後三丁酉增廣司馬榜目』 등이 해당되며, 별사류에는 『季漢書』, 『十九史略通攷』, 『十九史略諺解』, 『史補略』, 『續史略翼箋』, 『帝王韻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잡사류에는 『明義錄』, 『續明義錄』, 『明義錄諺解』, 『續明義錄諺解』, 『莊陵誌』, 『闡義昭鑑』이 간행되었고, 편년류에는 『資治通鑑綱目』, 『東國通鑑』, 『麗史提綱』, 『歷代通鑑纂要』,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등이 포함되었다. 조령주의류에는 『閔文忠公奏議』, 『受教輯錄』, 『陸奏約選』, 『崇儒重道論音』, 『諭中外大小臣庶篇音』 등이 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기류에는 『白江先生年譜』, 『宋名臣言行錄』, 『皇明世說新語』 등이, 초사류에는 『東萊先生音註唐鑑』, 『史記英選』, 『史漢一統』 등이 간행되었으며, 정사류와 보계류에는 『漢書』, 『漢書評林』, 『江陵金氏世譜』, 『杞溪俞氏族譜』 등이 포함되었다.

子部는 총 33종이며, 儒家類가 16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醫家類(7종), 兵家類(3종), 藝術類(3종), 類書類(2종), 農家類(1종), 雜家類(1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류에는 『擊蒙要訣』, 『警民編』, 『御製警世問答』, 『敦孝錄』, 『御製百行源』, 『三綱行實圖』, 『聖學十圖』, 『小學』, 『小學諺解』, 『二倫行實圖』, 『鍾德新編』, 『종덕신편언』, 『朱書百選』, 『朱書要類』, 『敬齋箴集說』, 『朱子語錄』 등이 포함되었다. 의가류에는 『東醫寶鑑』, 『痘科彙編』, 『痘疹會通』, 『素問玄機原病式』, 『醫學正傳』, 『增補萬病回春』, 『黃帝內經素問』 등이 있으며, 병가류에는 『兵將圖說』, 『兵學指南』, 『吳子直解』 등이, 예술류에는 『酒德頌』과 안평대군·성수침 글씨 등이 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서류에는 『古今事文類聚』, 『類苑叢寶』, 농가류에는 『農家集成』, 잡가류에는 『百家類纂』 등이 해당된다.

集部는 총 58종이며, 그 가운데 別集類가 48종으로 집부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總集類(7종), 詞曲類(2종), 詩文評類(1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별집류에는 『兼山集』, 『鷗浦集』, 『獨石集』 등 개인 시문집의 비중이 많았으며, 총집류에는 『古文百選』, 『唐宋八大家文鈔』, 『唐大家柳柳州文抄』, 『唐詩鼓吹』, 『溫陽世稿』, 『唐宋八子百選』, 『濂洛風雅』 등이 포함되었다. 사곡류에는 『御評兩漢詞命』, 『龍飛御天歌』, 시문평류에는 『詩藪』 등이 간행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사자집의 비중을 살펴보면 經部 31종으로 18.5%, 史部 46종으로 27.4%, 子部 33종으로 19.6%, 集部 58종으로 34.5%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집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부, 자부, 경부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사감영 간행본은 경서 또는 교육용 서적인 經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문학류인 集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부 58종 가운데 고려·조선시대 인물의 시문집이 38종으로 전체 25%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한 점에서 주목된다. 타 지방관아와 마찬가지로, 경사감영에서도 문집 간행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감영과 군현 관아에 관계없이 문집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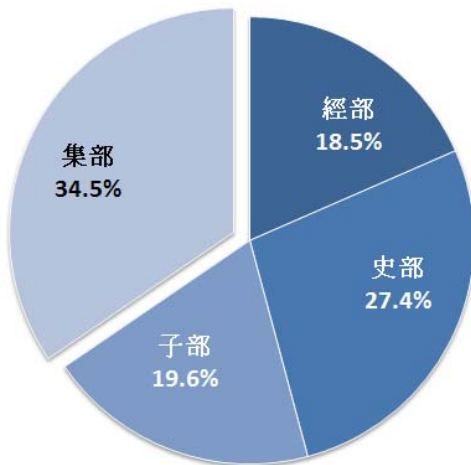


그림 1. 경사감영 간행본 168종의 經·史·子·集 비중

III. 경상감영 간행본의 간기 분석

서책 실물을 통해 경상감영본임을 알 수 있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刊記와 標題紙이다. 간기에는 간행시기·간행주체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권말 또는 발문 뒤에 위치하지만, 드물게 목차 끝에 위치하기도 한다. 표제지는 일반적으로 앞표지 다음에 위치하며 제명, 저자나 편자, 간행시기, 간행주체 등의 정보가 수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서에서는 표제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8세기 이후 고서에서 간혹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간기 또는 표제지에 경상감영이 표기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3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제지의 사례는 극히 일부이며, 93건 대부분 간기에서 경상감영본임을 표기하였다. 이들 간기가 형태와 표현의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간기의 형태

간기는 대부분 책의 권말, 특히 발문 마지막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문이 없는 경우 마지막 권의 끝에 새겨 넣었다. 간혹 거질의 서책인 경우 총목차 끝에 들어가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간기의 형태는 크게 장방형의 직사각형 테두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직사각형 테두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 전체 면을 사용하는 경우와 본문 끝에 한 줄로 간략하게 표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간기 형태는 정방형 사각테두리 안에 간기가 표기된 경우이며,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이다(그림 2~7 참조). 사각테두리에 간기를 표기하는 경우 대부분 양각으로 새기지만, 간혹 음각으로 판각한 경우도 있다(그림 7). 사각테두리 안의 글자배열은 2행4자가 가장 일반적이며, 간혹 3행인 경우나(그림4), 한 행에 5~6자인

경우(그림 3·4)도 있다.



그림 2 唐宋八大家文鈔
(모덕사 소장본)
[戊戌仲夏 嶺營開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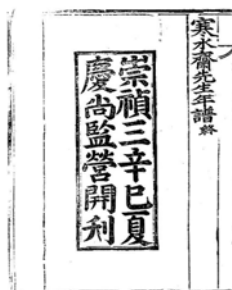


그림 3 寒水齋先生文集
(후손 문중 소장본)
[崇禎三辛巳夏 慶尚監營開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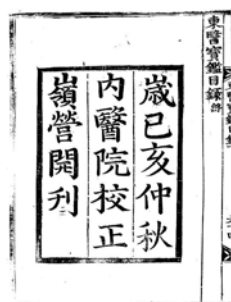


그림 4 東醫寶鑑(己亥)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歲己亥仲秋 內醫院校正 嶺營開刊]



그림 5 纂圖互註周禮
(러시아국립도서관 소장본)
[乙卯仲夏 嶺營新刊]



그림 6 書傳諺解(壬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壬戌季春 嶺營重刊]



그림 7 十九史略通攷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歲在壬辰 嶺營新刊]

두 번째는 사각테두리 없이 마지막 페이지에 표기된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의 간기는 흔하지 않지만, 마지막 책판의 비어있는 왼쪽 마지막 면에 표기하기도 하고(그림 8), 별도의 판목에 간기만 새겨넣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하기도 한다(그림 9). 또는 목차의 마지막 여백면에 간기를 수록한 경우도 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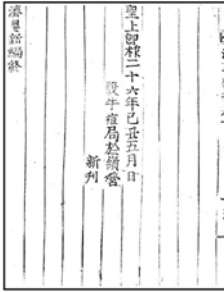


그림 8 濟嬰新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聖上卽祚二十六年己丑五月日 設牛痘局於嶺營 新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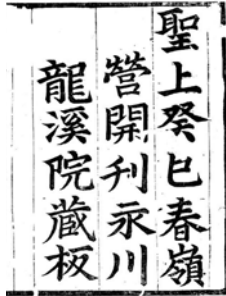


그림 9 生六臣先生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聖上癸巳春 嶺營開刊 永川龍溪院藏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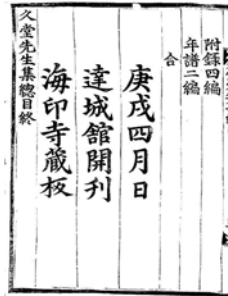


그림 10 久堂先生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庚戌四月日 達城館開刊 海印寺藏板]

세 번째는 본문 끝에 한 줄로 간략하게 표기한 경우이다. 본문의 글씨 크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작게 표기되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간기 형태보다는 눈에 쉽게 띄지는 않는다(그림 11~13). 간행사항을 크게 표기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책판이 완성된 이후 간기를 새겨 넣은 별도의 나무조각을 책판에 삽입한 경우에 이러한 형태를 띤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喪禮備要(1744)
(프랑스중앙언어문화학교 소장본)
[崇禎再甲子秋 嶺營開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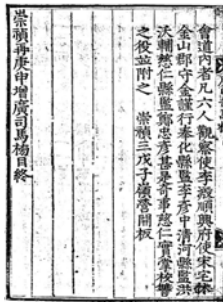


그림 12 崇禎再庚申
增廣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崇禎三戊子 嶺營開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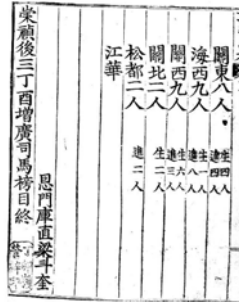


그림 13 崇禎紀元後三丁酉
增廣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丁卯嶺營梓印]

이상 3가지 형태의 간기를 살펴보았다. 간기 이외에도 간행시기와 간행주체를 알 수 있는 요소로 표제지가 있는데 그 사례가 많지 않아 형태를 유형화하기는 어렵다. 경상감영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표제지의 형태를 살펴보면(그림 14~16), 가운데는 서명이 위치하고 좌우에 간행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배치되는 형태이다. 서명의 우측에 간행시기를 알려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좌측에는 간행 또는 보관 주체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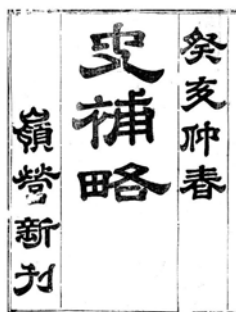


그림 14 史補略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癸亥仲春 嶺營新刊]



그림 15 痘疹會通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甲午中夏 嶺營藏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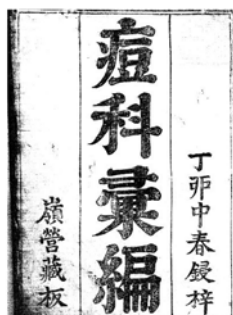


그림 16 痘科彙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丁卯中春 嶺營藏板]

2. 간기의 표현

이상 간행시기와 간행주체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간기와 표제지의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경상감영본의 간기에 포함되는 내용과 표현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간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간행시기에 대한 표현, 간행주체에 대한 표현, 간행 행위에 대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책판 보관의 주체와 행위에 대한 표현, 원고 교정의 주체와 행위에 대한 표현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간기의 표현을 세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간행시기에 대한 표현이다. 간행시기는 연월까지 표기한 경우도 있고 간행연도만 표기한 경우도 있는데, 간행연도는 주로 干支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정확한 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지학적 분석 및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崇禎 등의 중국연호나 聖上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간행년을 표현한 경우에는 정확한 간행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崇禎再甲子’(1744) 또는 ‘聖上卽祚二十六年己丑’(1889) 등으로 표기된 경우이다.

두 번째는 간행주체의 표현이다. 경상감영본의 경우에는 간행주체를 대부분 ‘嶺營’으로 표기하였고, 드물게 ‘慶尙監營’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그림 3). 이와 같이 경상감영이 간행의 주체가 되어 간행이 이루어졌지만, 간혹 감영의 특정 조직 또는 기구가 서책의 간행주체로 표기된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牛痘에 관한 의학서인 『濟嬰新編』 간기에는 “設牛痘局於嶺營 新刊”이라 기록되었는데(그림 8), 이는 『제영신편』 간행의 주체가 嶺營에 설치된 牛痘局임을 의미한다. 또 다른 사례로 『久堂先生集』 간기에 의하면 “達城館開刊”으로 간행주체를 표기하였는데(그림 10), 이때의 達成館은 경상감영 겸 대구부에 설치된 客廝의 扁名이었다. 즉 대구부 객사에서 주관하여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달성관’이란 표현은 크게는 대구부에서의 간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 우두국과 달성관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감영의 특정 건물·조직·기구가 간행주체가 되어 서책 간행이 이루어졌던 사례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는 간행 행위에 대한 표현이다. 간행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開刊’이며, 간혹 ‘梓行’, ‘梓印’, ‘鋟梓’ 등의 표현도 사용되었다. 간행 판차에 대한 표현으로는 일반적으로 ‘新刊’과 ‘重刊’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改刊’을 사용한 사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책판의 보관 및 원고의 교정 등에 관한 표현 사례이다. 간기에는 책판보관과 원고교정 등에 관한 정보는 쉽게 볼 수 없지만 간혹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책판의 보관 주체와 행위에 대한 표현이 있는 간기로는 『生

六臣先生集』과 『久堂先生集』 간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聖上癸巳春 嶺營開刊 永川龍溪院藏板”이라 표기하였는데(그림 9), 경상감영에서 간행하였고 영천의 용계서원에서 책판을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庚戌四月日 達城館開刊 海印寺藏板”이라 표기하였다(그림 10). 대구부 달성관에서 간행하였고, 간행한 책판은 합천 해인사에서 보관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책판의 보관에 있어 ‘藏板’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책판 보관 주체와 행위에 대한 표현을 간기에 포함한 사례도 볼 수 있다. 또한 원고 교정의 주체와 행위에 대해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는 『東醫寶鑑』이다. 『동의보감』 영영본 간기에는 “內醫院校正 嶺營開刊”이라 기록하였는데(그림 4), 내의원에서 교정하였고 경상감영에서 간행하였음을 표기한 것이다.

IV. 경상감영 출판의 특징

책판목록에 수록된 경상감영 소장본이 경상감영 간행본이라는 전제 하에 168종의 간행본과 감영 출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경상감영 출판의 특징은 경상감영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각 감영 출판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감영과 비교되는 경상감영 고유의 특징에 대해서는 타 감영 간행본과 출판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지역거점 간행소로서의 中央刊印本 번각과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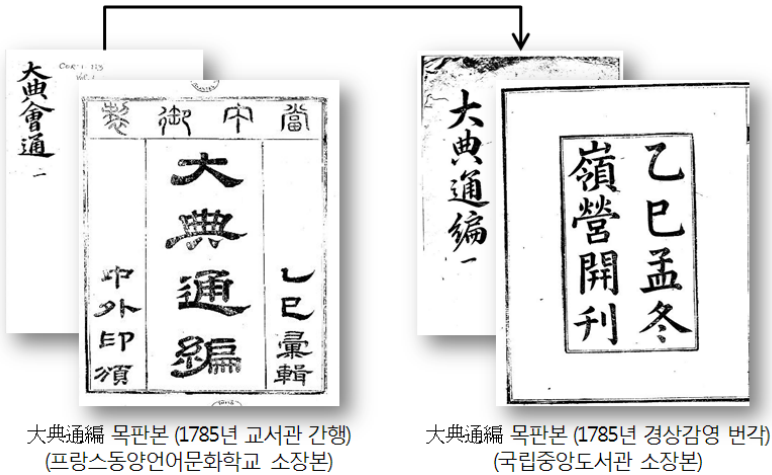
경상감영 간행본을 통해 살펴본 감영본의 첫 번째 특징은 중앙에서 간행된 목판본 또는 금속활자본이 각 지역 감영에서 목판으로 번각되어 해당 도의 주부군현 및 유생들에게 배포되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大典

『大典通編』의 번각과 관련된 다음 내용과 같다.

『大典通編』이 이루어졌으니, 國朝의 典章制度에 관한 책이다. … (임금이) 손수 序文을 지어 첫머리에 기재하고 인하여 校書館에 보내어 刊印하였다. 이 책이 이루어지매 編輯에 참여한 여러 신하가 箋文을 갖추어 올리니, 임금이 仁政殿에 나가서 몸소 받아서 전국에 반포하였다. 또 湖南·嶺南·關西의 監營에 명하여 翻刻하여 木板을 간직하게 하였다.³⁾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85년(정조 9)에 완성된 『대전통편』은 교서관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이후 교서관본을 전라감영·경상감영·황해감영에 보내 목판 번각 후 감영에서 번각판을 보관하게 하였다. 실제 『대전통편』이 교서관과 각 감영에서 간행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표제지와 간기를 통해 교서관본과 이를 번각한 경상감영본을 찾을 수 있었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大典通編』 교서관 목판본이 경상감영에서 번각된 사례



3) 정조실록 20권, 정조 9년(1785) 9월 11일 정사.

정조실록의 기사와 현존본 표제지·간기를 통해 교서관본이 경상감영에서 번각되는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85년 9월 이전에 『대전통편』이 완성되어 교서관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같은 해 9월 11일에 왕이 각 감영에 번각할 것을 명하였고, 실제 교서관 간행본이 감영으로 전달되어 경상감영에서 번각이 완료된 시점이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간기를 통해 10월 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한 달 사이에 감영번각본이 완성되었던 것이고, 매우 신속하게 번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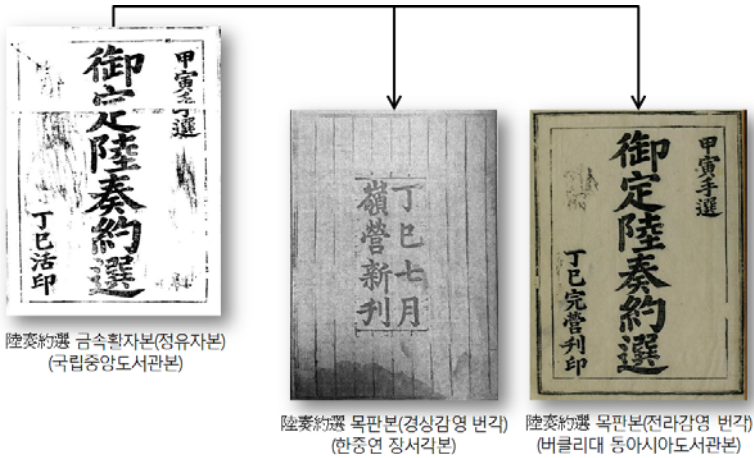
책판목록을 확인한 결과 『대전통편』의 감영 번각은 경상감영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라감영·충청감영·황해감영에서도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鏤板考』에서는 『대전통편』의 목판이 교서관, 호서관찰영, 호남관찰영, 관서관찰영에 보관되어 있다고 기록하였다.⁴⁾

『대전통편』의 경우 교서관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이 각 감영에서 다시 목판본으로 번각된 사례이다. 교서관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각 감영에서 번각한 사례도 확인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御定陸奏約選』이다. 완성된 『어정육주약선』은 1797년(정조 21) 윤6월 12일에 교서관에서 금속활자로 印行하여 반포하라는 왕명이 있었는데,⁵⁾ 당시에 정유자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 현존하고 있다. 1797년 윤6월에 교서관에서 인쇄한 금속활자본은 이후 전라감영과 경상감영에서 번각되었는데, 이는 1797년에 간행된 완영본과 영영본 표제지·간기를 통해 확인된다(그림 18 참조).

4) 누판고 권1, 「大典通編」. “校書館藏 印紙九牒六張一片, 湖西觀察營藏 印紙十一牒十張, 湖南觀察營藏 印紙九牒十二張, 關西觀察營藏 印紙九牒十張”

5)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윤6월 12일 경술 기사.

그림 18. 『御定陸奏約選』 교서관 금속활자본이 嶺營·完營에서 목판본으로 번각된 사례



1797년 『어정육주약선』의 감영 번각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97년 윤6월에 교서관에서 정유자로 간인되었고, 이후 교서관 금속활자본을 경상감영과 전라감영으로 보내어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당시 경상감영본은 7월에 간행되었음을 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정육주약선』의 경우에도 한 달 사이에 번각본 간행이 이루어질 만큼 중앙에서 지방감영으로의 왕명 전달과 지방감영에서의 목판 번각 기술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간인본이 각 지방감영으로 전달되어 다시 번각본으로 간행되는 현상은 조선시대 감영출판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중앙간인본이 경상감영에서 재간행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御定奎章全韻』, 『御定陸奏約選』, 『御定欽恤典則』, 『大典通編』, 『御定朱書百選』, 『御製百行源』, 『御製警世問答』,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軍布折半蕩減論音』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왕이 중요시 여겼던 서책으로 대부분 御製書, 御定書, 御評書에 해당되며, 이들 서책에는 御製序文 또는 御筆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서책의 특징은 왕의 국정철학과 통치이념

을 담았다는 점이며, 이들 서책이 중앙에서 간인된 후 지방감영으로 전달되어 번각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왕의 국정철학과 통치이념을 주부군현의 말단에까지 전달하려는 의지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御定朱書百選』이다. 1794년 12월 『어정주서백선』이 완성되었고, 정유자를 사용하여 금속활자본이 인쇄되었다. 중앙의 금속활자본은 전라감영, 경상감영, 황해감영에 보내져 이를 번각하도록 명하였고, 번각된 목판은 각 감영에서 소장하도록 하였다.⁶⁾ 지방감영의 번각을 통해서 왕은 4都 8道 300州府郡縣에 책을 배포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각 지역 구석구석 배포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기를 ‘나라 안의 관복 입은 선비들이 모두 내가 주자를 존경하는 뜻을 알게 하도록 각 道에 下諭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⁷⁾

이와 같이 팔도 감영에서의 어제서·어정서·어평서 간행을 통해 국왕의 철학과 이념을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지방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교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중앙의 지방 통치를 위해 감영 출판이 적극 활용되었으며, 중앙간인본의 감영 번각 출판은 왕의 지방 통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2. 경상감사 주도의 文集類 간행

기존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감영을 포함한 지방관아에서는 지방관에 의한 문집 간행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⁸⁾ 조선초기에는 명현의 문장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왕명에 의한 문집 간행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6) 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1794) 12월 25일 무인.

7) 승정원일기 96책, 정조 24년(1800년) 4월 13일 을미. “俾域中之冠儒服儒者 皆知予尊朱之意事 下諭諸道”

8) 본 절의 내용은 「지방관과 선조 문집 간행」(손계영, 『영남학』 15, 2009)과 「조선시대 감영의 문집간행과 그 배경 연구」(손계영,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15)을 참고하였음.

이는 국가가 해당 문집에 공식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후에 국가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명현 문집의 수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들 문장의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생기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관 주도의 문집 간행이 州府郡縣에 정착되었다.

각도의 책임자인 관찰사부터 郡縣 단위의 수령인 군수·현령·현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계의 지방관들이 문집 간행의 결정권을 가졌다. 그 가운데 도내의 최고 책임자인 관찰사는 문집 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지방감영의 출판 결정권은 관찰사인 監司의 절대적인 권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로 부임한 이들은 해당 감영에서 자신의 선조 문집을 간행하려고 하였고, 주위의 인물들이 자기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감사에게 청탁을 넣는 일은 하나의 관행으로 행해졌다.

관찰사 등의 지방관이 해당 지역에서 문집을 간행하려는 것은 명현의 문장을 보존하려는 공적 명분이 있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물적·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목판 제작 및 서책 인출을 위해서는 판목 등의 물적 자원과 각수 등의 노동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차원에서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운 작업이었다. 때문에 지방관에 제수되면 수집·편찬한 선조 유고의 간행에 착수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지방관에 제수한 이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전형적인 문집 간행의 방식이었다. 감사의 물적·인적 지원으로 간행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는 1692년에 간행된 鄭介淸의 『愚得錄』이다. 숙종 17년(1691) 羅德峻의 증손 羅斗春은 증조의 스승인 정개청의 문집 간행을 위해 전라감사 李玄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전라감사는 간행에 필요한 木板을 지원하였다. 다음 해인 1692년에는 새로 부임된 전라감사 洪萬朝의 지원 아래에 전라도 여러 고을에 목판을 배분하여 開刊이 완료되었다.⁹⁾

각도 監司에 의한 문집 간행이 모두 성사되었던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몇

9) 鄭介淸, 『困齋先生愚得錄附錄』上, 「困齋先生事實」. “辛未冬 監司李玄紀 用別檢羅斗春曾孫言 以數百板材助之 至是 監司洪萬朝 採務安儒生等所白 遂頒諸邑而刻焉 士人尹世泰 先生弟應淸外後孫高琬等 幹其事 月餘功告訖”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우선 해당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간행이 중단되거나 간행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金止男의 『龍溪遺稿』를 들 수 있다. 숙종 22년(1696) 李善溥(1646-1721)는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외증조부 김지남의 문집 『용계유고』를 간행하려 시도하였으나 그 해의 흉년으로 인해 간행을 중단하였다.¹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함경감사로 있던 權懋(1694-1759)이 영조 33년(1757) 자신의 伯父 權尙夏의 문집 『寒水齋集』의 간행을 시도하였으나 함경감영의 ‘物力이 피폐하여’ 결국 간행하지 못하였고(尹鳳九, 『屏溪集』 卷13, 「答權亨叔」), 이후 저자의 외증손 黃仁儉(1711-1765)이 경상감사 시절에 외증조부의 문집을 34권 15책으로 간행하였다. 감사가 간행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문집 간행이 감영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감영의 재정적 문제는 예민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관의 물력을 동원하면서도 감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간행작업을 중단하였던 것은 감사 자신의 개인적 명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의 문집 간행에 있어 감영의 재정 문제 이외에 작용하였던 중요한 장애요소는 감사의 체직 시기였다. 문집 간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사가 체직되었을 경우 문집 간행을 전면 중단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蔡裕後의 『湖洲集』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숙종 27년(1701) 蔡유후의 從孫 蔡彭胤이 蔡유후의 유고를 가지고 전라감사 洪萬朝를 찾아가 간행을 부탁하자 흥만조는 간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흥만조가 다음해에 형조참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간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년 뒤인 1704년 11월에 흥만조가 다시 외직으로 함경감사에 체수되면서 『호주집』 간행이 성사되었다.¹¹⁾ 즉 전라감사 시절에 약속한 문집 간행을 함경감영에서 간행하였던 것이다. 이는 교체

10) 李善溥, 『龍溪遺稿』, 「龍溪遺稿跋」. “昨年 不肖之忝守嶺臬也 盖嘗有意於校讎板本 添入行跡 以爲傳衣永遠之圖 而歲適大歉 無暇私事 卒卒徑歸 深以爲恨 今大學士吳公 聞而慨然 作爲弁首之語 舍仲兄方宰益山郡 竝取碣銘 而剗劖之 歸其板於山縣”

11) 蔡彭胤, 『湖洲集』, 「湖洲集跋」. “頃年前左侍郎洪公觀察湖南 彭胤以公集謁 洪公義然曰諾 謀於伯兄以合役且舉 洪公罷 越四年 洪公有北臬之命 亟取以行曰 吾不可以不卒吾事 蓋後公卒四十餘年而斯文始顯 嗚呼 豈故有待耶”

되는 전라감사 후임자에게 간행작업을 인수인계하여 간행을 완료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해당 지역에서의 간행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다음 부임자인 감영에서 재작수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監營이라는 공간 중심이 아닌 監司라는 인물 중심의 체제였음을 보여준다.

감사의 문집 간행은 감영이라는 공적 공간과 재정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체직되었을 때에는 전면 중단되는 사적 성격이 강한 관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의 사적 간행이었음을 말해주는 또 다른 근거는 간행 후 책판을 사적 공간으로 이동한 경우이다. 영조 37년(1761) 경상감사 黃仁儉은 외조부인 권상하의 문집을 간행하며 ‘崇禎三辛巳夏慶尙監營開刊’이란 刊記를 표기하였다(그림 19 참조). 즉 신사년(1761) 경상감영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음을 서책의 끝에 표기함으로써 해당 감영의 공적 간행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책판목록의 경상감영 또는 대구의 항목에서 권상하의 『한수재집』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 경상감영에서 간행되었고, ‘경상감영’이란 刊記가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판목록에서는 완전히 누락되었다. 단 1700년대 후반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는 『누판고』에서 그 소장처가 단양 상선암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행 이후 후손들이 『한수재집』의 책판을 감영에서 단양 상선암으로 옮겨갔기 때문일 것이다.¹²⁾ 감영의 공적 간행을 보여주는 간기의 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리스트인 책판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점과 후손들의 선조 문집 책판의 이동 행위는 문집 간행을 사적 행위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2) 상선암은 권상하가 직접 이름 부여하고 암자를 세운 곳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에 후손들이 단양 상선암에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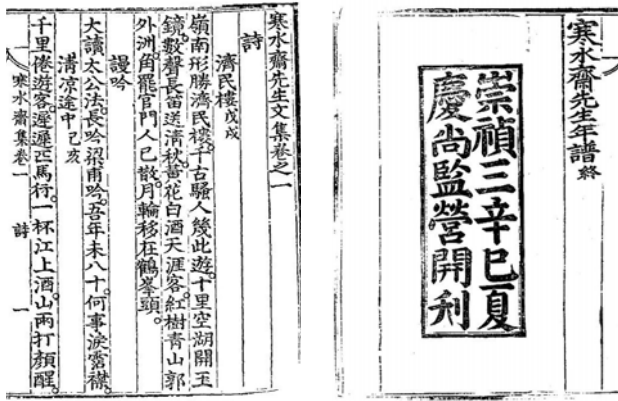


그림 19 『寒水齋集』 권1 권수제면(左)과 刊記(右)

현종 10년(1669) 閔齊仁의 5대손 閔著重(1625-1677)이 경상감사로 부임하며 이전에 간행된 민제인의 『立巖集』 판목 중 손상된 부분을 補刻하고 일부 내용은 追刻하였다. 그 이후 68년이 지난 영조 12년(1736)에 민제인의 7대손이자 민시중의 손자인 閔應洙(1684-1750)가 경상감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다시 『입암집』을 보각·추각하였다. 1760년경에 작성된 『영호열읍소재 책판목록』·『각도책판목록』 등의 책판목록에 의하면 민제인의 『입암집』은 대구에 소장되어 있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12대손 閔泳徽가 대구의 책판을 부여의 宗中으로 옮겨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는데,¹³⁾ 이 또한 감사 또는 그의 후손들이 감영에서 간행한 책판을 자신의 근거지로 이동해 갔다는 것은 감영에서의 문집간행을 사적 개념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책판목록에 나타나는 168종의 책판 가운데 고려·조선시대 인물의 문집 간행은 38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22.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자와 혈

13) 閔泳徽, 『立巖集』, 「立巖集重刊序」. “板本藏于大邱龍淵寺 守護惟謹 而閱歲既久 刊缺頗多 亦有佚落者 不肖泳徽 爲是之懼 茲歲乙丑 以繼述之義 另屬族叔達鎬 運致扶餘宗中 攷校釐正 補刊其缺落 於是乎完矣”

연·혼맥·학맥 등의 관계를 갖는 경상감사 등에 의해 문집이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서·발문, 묘갈명, 연보, 간찰 등을 통해 혈연·혼맥·학맥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집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사례는 <표 3>과 같다.

표 3 경상감사 등의 주도에 의한 문집 간행 사례

| 문집명 | 저자 | 간행연도 | 간행형태 | 간행주도인물 (직책) | 저자와의 관계 |
|--------|-----|------------|------|----------------|------------|
| 海峰集 | 洪命元 | 1656년 | 初刊 | 洪處厚(慶尙監司) | 아들 |
| 樂靜集 | 趙錫胤 | 1670년경 | 初刊 | 閔著重(慶尙監司) | 처조카 |
| 月沙先生集 | 李廷龜 | 1688년 | 重刊 | 李世華(慶尙監司) | 손자의 交友 |
| 壺谷集 | 南龍翼 | 1695년경 | 初刊 | 李寅煥(慶尙監司) | 아들의 장인 |
| 龍溪遺稿 | 金止男 | 1697년 | 追刻後刷 | 李善溥(慶尙監司) | 외증손 |
| 鳴臯集 | 任鎭 | 1704년 | 初刊 | 朴權(慶尙監司) | 외현손 |
| 醒翁先生遺稿 | 金德誠 | 1706년 | 重刊 | 金演(慶尙監司) | 증손 |
| 鶴泉集 | 成汝學 | 1706년 | 初刊 | 李壘(慶尙監司) | 외손 조카 |
| 海峰集 | 洪命元 | 1716년 | 重刊 | 洪禹寧(慶尙監司) | 증손 |
| 習齋集 | 權擘 | 1717년 | 三刊 | 權僕(慶尙監司) | 후손(4세손) |
| 月沙先生別集 | 李廷龜 | 1720년 | 別集 | 李雨臣(大邱判官) | 후손(4세손) |
| 白洲集 | 李明漢 | [1720년 이전] | 三刊 | 李雨臣(大邱判官) | 증손 |
| 壺隱集 | 洪受疇 | 1722년 | 初刊 | 洪禹傳(慶尙監司) | 堂姪 |
| 獨石集 | 黃赫 | 1727년 | 重刊 | 黃璿(慶尙監司) | 후손(6세손) |
| 久堂先生集 | 朴長遠 | 1730년 | 初刊 | 朴文秀(慶尙監司) | 증손 |
| 南溪集 | 朴世采 | 1732년 | 初刊 | 趙顯命(慶尙監司) | 문인 |
| 立巖集 | 閔齊仁 | 1736년 | 補遺 | 閔應洙(慶尙監司) | 후손(7세손) |
| 太華子稿 | 南有常 | 1736년 | 初刊 | 閔應洙(慶尙監司) | 友人의 재종형 |
| 畏齋先生文集 | 李端夏 | 1738~9년 | 初刊 | 李箕鎭(慶尙監司) | 姪孫 |
| 睡谷集 | 李畚 | 1739년 | 初刊 | 李箕鎭(慶尙監司) | 從子 |

| 문집명 | 저자 | 간행연도 | 간행형태 | 간행주도인물 (직책) | 저자와의 관계 |
|-------|-----|-------|------|----------------|------------|
| 陰崖先生集 | 李紆 | 1754년 | 初刊 | 李彝章(慶尙監司) | 族從孫 |
| 靑泉集 | 申維翰 | 1770년 | 初刊 | 李瀾(慶尙監司) | 先代交友 |
| 正菴集 | 李顯益 | 1773년 | 初刊 | 李商進(大邱判官) | 손자 |
| 兼山集 | 俞肅基 | 1775년 | 初刊 | 金載順(慶尙監司) | 사위 |
| 晉庵集 | 李天輔 | 1781년 | 初刊飜刻 | 李文源(慶尙監司) | 아들 |
| 水北遺稿 | 金光炫 | 1805년 | 初刊 | 金義淳(慶尙監司) | 후손(6세손) |
| 直菴集 | 申暉 | 1811년 | 初刊 | 金會淵(慶尙監司) | 외손 |
| 休翁集 | 沈光世 | 1859년 | 重刊 | 沈敬澤(慶尙監司) | 후손(9세손) |

<표 3>의 사례 가운데 경상감영에서 간행되었음을 간기로 표시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그림 19·20 참조), 서문과 발문, 묘갈명 등에서 경상감사 또는 대구관관의 도움을 받아 감영에서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앞서 설명한 권상하의 『한수재집』과 같이, 책판목록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경상감영 간기가 있는 사례도 발견되는데, 1854년에 간행된 夏夏堧의 『西州集』(그림 22), 1758년경 간행된 閔櫟의 『楊湖先生遺稿』(그림 23)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책판목록에서 경상감사 주도의 문집간행 비중은 전체 간행의 22.6%로 나타났지만 책판목록에 기입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를 감안한다면 전체 2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경상도 36개 관아에서 간행된 서책 중 문집류가 차지하는 비중과 상당히 유사한 수치이다.¹⁴⁾

14) 경상감영을 포함한 영남지역 36개 관아에서 간행된 서책을 분석한 결과 문집류가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탉일, 1999. ; 장인진, 2003. ; 조정화,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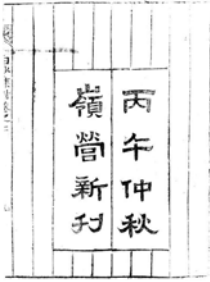


그림 20
白沙集【嶺營新刊】



그림 21
水北遺稿【嶺營梓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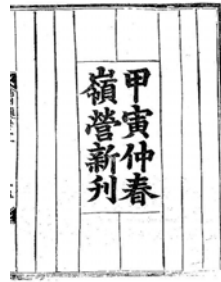


그림 22
西州集【嶺營新刊】



그림 23
楊湖遺稿【嶺營開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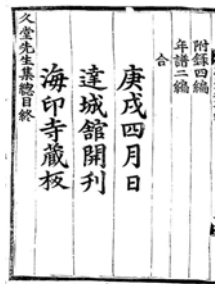


그림 24
久堂集【達城館開刊】

3. 문집·족보류 책판의 이동과 별도 관리

책판목록에는 기본적으로 각 책판의 서명과 인출에 필요한 종이와 먹의 양이 기록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해당 책판이 현재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표기하기도 하였다. 경상감영에서 소장된 것으로 표기된 책판목록에 의하면, 경상감영본 책판 168종 가운데 31종의 책판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책판의 사찰 이동에 대한 표기는 1760년경 작성된 『영호열읍소재책판목록』, 1796년 작성된 『누판고』, 1889년 작성된 『서책목록』, 작성시기

미상의 『책판록』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경상감영 간행 책판의 이동 대상과 이동 사찰

| 이동 사찰 | 구분 | 옮겨간 책판의 서명 | 합계 |
|--------------|-----|---|-----|
| 동화사 (桐華寺) | 족보류 | 江陵金氏世譜, 杞溪俞氏族譜 | 12종 |
| | 문집류 | 兼山集, 獨石集, 白沙先生集, 睡谷先生集, 龍溪遺稿, 直菴集, 海峰集 | |
| | 기 타 | 三禮儀, 千字文, 小華外史 | |
| 용연사 (龍淵寺) | 문집류 | 太華子稿, 東里集, 三峰集, 水北遺稿, 月沙先生集·附錄·別集, 陰崖先生集, 立巖集, 竹泉集, 晉菴集 | 11종 |
| | 연보류 | 陰崖先生年譜 | |
| | 기 타 | 儀禮集傳 | |
| 용천사 (湧泉寺) | 문집류 | 北窓古玉兩先生詩集, 正菴集, 畏齋先生文集 | 4종 |
| | 연보류 | 白江先生年譜 | |
| 해인사 (海印寺) | 문집류 | 靑泉集, 明谷集, 久堂先生集, 南溪先生朴文純公文集·外集·續集 | 4종 |

<표 4>에 보는 바와 같이 31종의 책판이 이동된 공간은 주로 사찰이며, 동화사(12종), 용연사(11종), 용천사(4종) 등 대구지역 사찰과 합천 해인사(4종) 등 4곳으로 나타났다. 각 사찰별로 살펴보면 동화사로 옮겨간 책판으로는 『강릉김씨세보』, 『기계유씨족보』, 『겸산집』, 『독석집』, 『백사선생집』, 『수곡선생집』, 『용계유고』, 『직암집』, 『해봉집』, 『삼례집』, 『천자문』, 『소화외사』 등 12종이고, 용연사로 이동된 책판은 『태화자고』, 『동리집』, 『삼봉집』, 『수북유고』, 『월사선생집』, 『음애선생집』, 『입암집』, 『죽천집』, 『진암집』, 『의례집전』 등 11종이다. 용천사에는 『북창집』, 『정암집』, 『백강선생연보』 등 4종이 이동된 것으로 나타나고, 합천 해인사에도 『청천집』, 『구당선생집』 등 4

중으로 나타났다. 경상감영의 위치와 동화사, 용연사, 용천사의 위치를 살펴 보면 <그림 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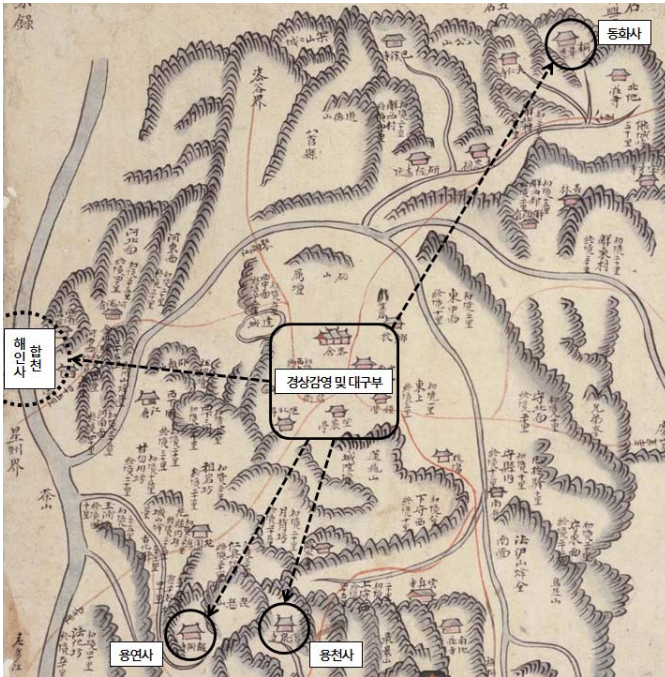


그림 25. 경상감영과 책판이동 사찰의 위치 (海東地圖 大邱府, 奎 古4709-61)

이들 책판은 주로 개인 또는 문중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집류, 연보류, 족보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상감영 간행본 중 개인·문중 서책의 경우에 의도적으로 사찰 등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작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책판목록에 의하면, 경상감영뿐만 아니라 타 지방관아에서도 같은 시기에 문집·연보·족보류 책판이 사찰·서원·서당 등으로 옮겨진 정황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각 지방관아의 책판이 타 공간으로 이동한 시기와 이동 사유 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선후기

지방관아의 재정 및 역할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경상감영에서 31종의 책판이 동화사·용연사 등의 사찰로 이동하게 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찰로의 책판 이동과 관리 주체의 변화는 감영 출판문화의 중요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책판목록에 수록된 경상감영 간행본을 조사하여 이를 중심으로 주제별 현황과 간기 형태와 표현의 분석, 경상감영 출판의 특징 등을 다루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판목록 수록 영영본 168종을 경사자집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經部 18.5%, 史部 27.4%, 子部 19.6%, 集部 34.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집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집부의 類別 분류에서는 문집이 포함된 別集類가 48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현존본을 통해 경상감영이 표기된 간기 또는 표제지가 있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간기의 형태와 표현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간기형태는 정방형 사각테두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되고, 테두리가 없는 경우에는 간기 표기를 위해 마지막 페이지 전체 면을 사용한 경우와 본문 끝에 한 줄로 간략하게 표기한 경우로 구분되었다. 간기표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행시기에 대한 표현, 간행주체에 대한 표현, 간행행위에 대한 표현으로 구성되었고, 예외적으로 책판 보관 주체와 행위에 대한 표현, 원고 교정의 주체와 행위에 대한 표현 등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경상감영 출판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경상감영에서는 중앙에서 전달된 중앙간인본을 번각하여 출판하는 지역거점 간행처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집류 간행에 있어서는 경상감사와 대구관관 주도 하에 문집이 간행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문집류와 족보류·연보류와

같이 특정 인물 또는 문종과 관련된 서책 책판의 경우에는 경상감영에서 계속 보관하지 않았고, 인근 사찰로 옮겨져 보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경상감영 간행본을 통해 경상감영 출판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출된 특징이 경상감영본만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들 특징은 타 감영본의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감영 간행본만의 고유한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감영본의 비교·분석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추후 8도 감영본의 비교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6월 1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6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鏤板考

- 정형우·윤병태 공편, 『韓國의 冊板目錄』, 보경문화사, 1995.
- 황위주 외,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대구: 경상북도·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4.
- 김무진, 「조선후기 경상감영에 관한 연구」, 『학림』 36, 2015, pp.125-179.
- 김백철, 「英祖의 綸音과 王政傳統 만들기」, 『장서각』 26, 2011, pp.10-67.
- 남권희, 「慶尙監營 刊行本과 樂育齋 所藏書冊 分析」,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2004, pp.285-320.
- 류탁일, 「慶尙監營의 出版文化」, 『경상도칠백년사』, 경상북도·경상도칠백년사편찬위원회, 1999, pp.651-670.
- 손계영, 「地方官과 先祖 文集 刊行」, 『영남학』 15, 2009, pp.229-269.
- 손계영, 「조선시대 감영의 문집간행과 그 배경 연구」,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2015.
- 옥영정, 「藏書閣 所藏 御製類 刊本の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29, 2004, pp.405-433.
-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50, 2011, pp.433-470.
- 우진웅, 「조선시대 맹자류의 간행과 판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근호, 「조선후기 국왕 御製類의 의미와 연구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pp.187-210.
- 이정민, 「英祖代 御製書 편찬의 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장인진, 「경상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출판에 끼친 영향」, 『한문학연구』 17, 2003.
- 조정화, 「조선조의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Abstract

Characteristics of Books and Publication by the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in the Late Joseon Period

Son, Ke-young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books published by the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after analyzing and comparing the list of books published by this office that are included in the late Joseon wood-block book list with each extant book. For this purpose, 170 books published by the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and included in the wood-block book list are selected for analyzing their current status by topic. Focusing on these books, this study examines the various colophon formats and details used by the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through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extant books with colophon marks from that office.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late Joseon publications inherent in books published by the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the details of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fter categorizing the 170 books by topic, it was found that 18.8% belong to the category of Confucian Classics, 27.1% to the category of History, 19.4% to the category of Masters and Philosophers, and 34.7% to the category of Belles-Lettres. Although it was predicted that the category of Confucian Classics in which educational books belong would have the most books, it turns out that

more than one-third of the books belong to the category of Belles-Lettres.

Second, the result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colophons of extant books are as follows. The colophon format is divided according to whether a square imprint exists or not. When a square imprint does not exist, colophons can be divided into those that take up the entire last page of the body matter versus those that are briefly written on the last line of the body matter. Colophon statement basically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date of publication, publisher, and reason for producing the manuscript; on rare occasions,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agency in custody of the wood-block book and the reason for it are included.

Third, a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by the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the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is revealed to have played the role of a hub of publishing center for the Yeongnam region by reprinting the central edition transmitted from the capital. Moreover, literary collections were pu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agistrate of Gyeongsang Province. It is also confirmed that published books related to a specific figure or a family lineage, such as collected works, genealogy, and chronological record of a person's life were not kept in the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The publications were transferred to a nearby temple for storage.

Keywords :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Books Published by the Gyeongsang Provincial Office, Wood-Block Book List, Late Joseon Period, Colophon.